보는 이들이 진짜처럼 느끼게 연출하는 '페이크 다큐'라는 장르가 있다.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페이크 다큐를 보는 듯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비유하거나 뒤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고 있다. 영화는 '나' 혹은 주변 '누군가', 아니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그린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정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내기자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감독 : 이태겸
드라마 | 2021 개봉

"밥 못먹고 코피 질질 흘리며 일했는데…"

여성노동자 '정은'

주인공 정은은 7년간 근무했던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다 하청업체에서 1년만 버티면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하청업체로 파견을 가게 된다. 파견이 불만족스러운 정은과 원청 직원의 등장이 불편한 하청업체 직원들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반드시 1년을 채워 원청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은은 혼자 책을 보며 공부해보지만, 현장 업무를 터득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막내'의 도움을 받아 점점 적응해가던 어느 날, 사고가 발생한다.

이태겸 감독은 '사무직 여성이 갑자기 현장으로 파견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이 영화는 한 회사의 근로자라면 나도,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정은'이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회사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를 벽 앞으로 옮긴다.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자 하청업체로 파견을 보낸다.

©네이버 영화

정은이 파견받은 하청업체는 높은 송전탑에 올라가 수리·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원청 여직원을 지극히 육체노동만을 하는 하청업체로 파견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당 파견이라 할 수 있다. 정은이 파견 후에도 버티며 일하자, 원청은 하청업체 소장을 압박하여 좋지 않은 평가점수를 주게 한다. 게다가 하청업체 평가를 온 원청 남직원은 정은에게 스스럼없이 성희롱 섞인 농담을 건낸다.

"우리가 무서운 건 해고예요"
하청업체 근로자 '막내'

고군분투하는 정은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하청업체 직원 '막내'는 어린 세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낮에는 송전탑 업무를, 밤에는 편의점과 대리운전 알바를 병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본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은을 견제하지만, 고소공포증으로 송전탑 자체를 두려워하는 정은이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도 송전탑에 오르는 것이 무섭지만 일하다가 죽는 것보다 '해고'가 더 두렵다던 그는 작업 중 결국 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원청 직원들은 막내의 죽음에도 유족이 어린 딸들뿐이라는 사실에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린 딸에게 사망 피해보상금이 적힌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종용한다. 하청업체 직원들과 정은은 동료의 죽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송전탑을 수리하러 가야 한다. 제작진의 의도였을까. 영화 중반 정은과 막내가 송전탑 위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전선을 타고 가는 장면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의 모습을 보듯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함께 전선을 타던 막내마저 죽은 후 정은이 혼자 올라간 송전탑 위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만이 자욱하다.

아직도 많은 수의 근로자는 정은과 막내처럼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안개 속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고 견뎌내야만 한다.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일을 지키기 위해.